

제2차 이사회 및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11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 및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업무보고 및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업무보고 내용 중 농장동물복지와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으나 농장동물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현재 업체에서는 이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하나하나 해나가자면 농지법이나 건축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육계 생산과 관련해서는 도계육을 유통업체와 거래시 중량단위로 판매하지 못하고 호수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닭 사육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량단위의 가격제로 바뀌어야 대닭 사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본회에서는 재검토하여 상정키로 했다.

닭고기 도체이상 감소방안 협의회 개최

오는 12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현재 육계 계열업체에서는 닭고기 이상도체가 5~20% 이상 발생해 막대한 경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0년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닭고기의 이상도체 발생이 육계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12월 4일(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세미나실에서 ‘닭고기 도체이상 감소방안 협의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본회는 (주)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등 육계 계열화업체와 함께 사육시설 뿐 아니라 사양부터 유통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닭고기 도체이상 감소 방안을 모색해 온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닭고기 도체이상 감소 방안 모색’에 대해서 (주)하림 조현성 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며, ‘육계 사육단계에서 닭고기 창상 발생 억제’에 관해서는 축산과학원 채현석 박사가, ‘육계 출하단계에서 도체이상 발생 감소기술’에 대해서는 (주)체리부로 이동규 과장이, ‘육계사 형태에 따른 도체이상 제어기술’에 대해서 (주)건지곽춘옥 사장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본회 서성배 회장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계열업체와 공동으로 최근 육계산업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닭고기 생산 및 도체이상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계육협회와 국립축산과학원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다양한 의견 제시



본회는 지난 11월 9일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육계생산기반조성, 사육계약방식 개선,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는 육계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최소한 감정가의 60% 이상 증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계열화 사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배달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EU FTA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서 제출

본회는 DDA, 한·미 FTA, 한·EU FTA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계장 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 등 예산지원사항과 관련 법률 등 제

도의 정비를 통해 계육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1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과에 총 17가지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①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른 포장자동화시설지원, ② 도계장 시설 지원, ③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위한 원종계장(GPS) 설립지원, ④ 육계사 지열난방시스템 시설 지원, ⑤ 육계사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시설 지원, ⑥ 부분육(컷업 및 발골) 생산시설 지원 등 예산지원 관련사항과 ① 축산법에 가축의 계열화생산 관련규정 신설, ② 축산법에도 유통협약제도 신설, ③ 신축축사 담보대출비율의 상향조정, ④ 닭고기 수출관련 사항, ⑤ 국가차원의 통계 정보시스템구축(종계, 부화, 육계), ⑥ 닭고기 군납 제도 개선 건의 검토, ⑦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시행, ⑧ 씨알관리를 위한 사항, ⑨ 축산제조업에서의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⑩ 닭고기 냉장온도관리 및 유통기준 강화, ⑪ 배달용 닭고기(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제6차 편집위원회 개최

송년호 편집내용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11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6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12월호의 경우는 올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호인만큼 2009년을 정리하는 의미의 내용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소식

한편, 2010년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7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차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편집회의 개최

본문 및 부록 내용 검토



본회는 지난 11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5차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하림에서 검수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부록에 게재하게 될 자료를 취합 후 가져온하여 차기 회의시 교정을 실시키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관련

회원사 및 관련 업체 자료 협조 요청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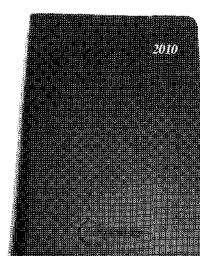
본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업체가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사전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각 회원사 및 관련 업체에 지난 11월 25일 공문을 통해 자료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계산서 수취 관련 정보'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4층
- 전화 : (031)707-5722~4
- 팩스 : (031)707-5725

2010년도 다이어리 제작

회원사와 관련 업계에 배부



본회는 회원사 및 육계관련 기관·단체·업체의 주소록 등의 유용한 정보를 수록한 2010년도 다이어리를 제작해 회원사 및 계약사육농가, 유관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한다.

이는 육계관련 종사자들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빠른 업무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본회 회원사를 비롯 정부기관, 축산단체, 축산관련 교육기관, 관련 업체 등의 주소가 수록되어 있다.